

2025년도 제3회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11월12일(수) 15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정·적법성 여부의 건

(15시 00분)

○간사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로 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들께 연임에 따른 동의를 구한 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7명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월 28일부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정·적법성 여부 심사의 건 이렇게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 위원장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

행해주시겠습니까.

전웅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전웅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분 중에서 거수 투표를 통해 득표수가 많은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셨으니까 계속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저를 한 분 추천하셨다고 보고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온 죄로 매를 맞더라도 추천한 것으로 하겠고요.

그럼, 전웅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웅기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선출위원장)

○위원장 전웅기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웅기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2년간 여러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사위원회가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사후 결과 보고서의 적정·적법성 심사에 있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호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에 장광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장광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번호 제6호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적정·적법성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앞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 의장에게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보고서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출장 수행내용, 출장비용 관련정보 및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의 적정, 적법여부에 대해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호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일본 출장을 다녀오신 장명영 의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명영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의장 장명영입니다.

전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6일, 제2회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4개군의 군수, 의장, 관계공무원 등 총 21명이 출장하였고,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선진국의 노인복지 벤치마킹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주요 출장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인 9월 11일에는 고텐바시 장수복지과를 방문하여 시장, 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면서 요양보험 중심 복지체계, 읍면단위 지역포괄 지원센터 운영, 재가돌봄 강화 등 다양한 고령자 복지정책과 체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중심, 자립지원,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장수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일차인 9월 12일에는 우에노하라시 장수개호과를 방문, 자연환경과 전통식문화 등 생활환경 요인이 고령자의 건강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이 장수마을의 핵심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레일예방교실 및 요양보험대상자 단기프로그램 운영, 특히 프로그램 수료 후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시스템은 일회성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적 고립해소 및 자립적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즈리하라 후루사토 장수관에서는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장

수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전통식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특산품 직매장 운영을 통한 고령자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고령친환경 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치바현 파크골프협회 연합회는 지자체의 시설투자와 민간운영 위탁이 결합된 구조로 공공성과 자율성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스포츠, 여가, 커뮤니티 기능이 통합된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은 교류 및 여가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도자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생력을 갖춘 책임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일차인 9월 13일에는 이종교, 아메요코시장 등 문화탐방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의 주요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이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현장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관리를 위한 장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식자재를 활용한 건강식단의 관광자원 활용, 친환경 힐링 쉼터 운영, 생활체육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대나무숲길 걷기와 같은 건강길을 조성하고 지역특산품 기반의 건강식단을 브랜드화하여 힐링·장수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체육시설 기능의 파크골프장을 공원형 복합 여가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켜 특산품 판매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복지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험하고 수집한 선진 우수사례를 집행부와 정책적 논의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내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갖춘 노인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임위 중심의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여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장여비는 출장국가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등급별 산출합니다.

당초 출장심사 시 계획서에는 5일간의 전체 일정을 가등급인 일본 도료를 기준으로 숙박비, 식비를 산출

하여 총 338만여 원 책정하였으나, 5일간의 일정 중, 2일간은 가등급인 도쿄로, 3일간은 나등급인 도쿄 외 지역으로 산출하여 실 집행경비는 항공료 포함 281만여 원대로 줄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비 산출내역 비교표 등 기타 세부적인 활동내용과 출장경비 증빙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태 위원

복지에 관해서 일정을 짠 것 같아요. 장수식단이 무엇인지 말로 해줬으면...

○의장 장명영

장수식단이 일종에 청국장 비슷한 낫토, 한국으로 말하면 로컬푸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지역에서 팔고, 드시는.

일본은 대를 이은 식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먹어본 식단은 일본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죠. 그래서 평가하기는 그런데,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재배하고 상품화해서 어르신들이 우리로 말하면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아닌데 스스로 해 오게끔 역량을 가르치더라고요.

지난번 전국시군구의장단에서 갈 때 유심히 봤는데 복지가 별것이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복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중복되고 과가 다르잖아요.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통합서비스, 우리 군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1개 과로 형성돼야 해요. 담양군청 과중에서 향촌복지과가 가장 업무량이 많고 포화상태거든요. 그만큼 복잡해요.

제가 다녀와서 군수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돌봄서비스가 되면 서비스 내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소외계층도.

그러면 부서가 커져야 해요. 저는 이 부서가 하나의 계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수리시설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복지를 떠나서, 그러니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따로 해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복잡한 단계를 안 거치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다면 통합돌봄서비스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암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단이 발족돼서 사무

관이 단장으로 12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담양은 향촌복지과 내에서 하나의 계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차츰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통합돌봄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거리가 멀고 우리로 따지면 면 단위, 마을단위 사람들을 어떻게 모시고 오냐.

우리는 과에서 행사하면 그 과를 중심으로 모시고 오게 이장들이 하잖아요. 다른 과에서 행사하면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원화되어 있어서 주로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모셔와서 일하시고, 현장까지 모셔다드리고 있더라고요.

통합돌봄서비스가 잘되면 통합돌봄서비스 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고정적으로 할 수 있죠.

요즘에는 1개 과에서도 계가 나뉘어서 그 계에서 따로 따로 해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어서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긴 한데 체계가 잘 잡혀있더라. 우리나라는 우왕좌왕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하고.

사실 우리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해서...

○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장광호 위원

담양군 군수님과 같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4개군 구곡순담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고 느낀 점이 정책제안으로 제시되어 있고 담양군에서 벤치마킹한 것 중에서 하겠다고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의장 장명영

딱히 없었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갔어요. 우리나라는 열악하다고 봐야죠.

아까 설명드렸던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여가생활도 하고 파크골프,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담양군을 생각한다면 백진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저도 파크골프를 쳐봤지만 인구는 많고 골프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타구하러 걸어가는데 뒤에서 빨리가라고 하고 치고 따라오고 하니까, 일반골프는 타이밍을 7분 정도 두나요?

그렇게 두고 따라오는데 여기는 막 따라오잖아요. 정신없이 치고 가는 파크골프장이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일본은 파크골프 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관에서 짓고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운영해요.

○장광호 위원

파크골프장이 담양에 백진공원 한 군데 있는데, 일본 견학 다녀온 데는 18,000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담양은 1,000원?

○의장 장명영

지금 3,000원.

○장광호 위원

이용료 차이가 많이 나고 싸니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려는 사람은 많고, 공간은 협소하고, 이용료는 3,000원이니까 저렴하고.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추세고 담양도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일본 다녀와서 군정에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구곡순담 4개 군 협의체가 매년 선진지 시찰하고 견학을 다니는데, 장수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가. 갔다 와서 4개 군이 공동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됐나요?

○의장 장명영

그것은 없었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올해는 순창군이 주관부서거든요. 순창에서 하고, 내년에는 어디인지 파악 못했습

니다마는 장수어르신들 모셔서 식사하고 공연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시찰 가고, 그 전에는 유럽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갔는데...

행사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장광호 위원

노인들 한마당 위안 잔치로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고 장수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구곡순담협의체가 구성해서 매년 행사하고 선진지 갔다 오니까 공동으로 사업정책을 정부에 건의해서 특화된 뭔가 나와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

선진지는 갔다 오는데 정책은 반영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군에 어차피 군수나 관련과 실무자가 가니까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면 좋겠다.

○의장 장명영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가 곧 일본에서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너무 적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틀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통합돌봄을 내년 3월부터 전체 시행되거든요. 향촌복지과에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계에서 하는데 통합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에어컨도 달아주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담양군에 경로당 350여개 되는 다 관리해야 해요. 인적 관리해야 되고.

통합돌봄서비스가 따로 나와야 해요. 정책적으로 주는 혜택이나 돌봄이나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 책임 있는 과가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일에 치여 죽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술을 안 먹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걷고 자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청소년 아동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확장돼야 해요. 다문화계가 있지만 실무원 포함해서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다문화나 학교밖청소년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사회적 부담이 커집니다. 계도 커져야 하는데 통합돌봄도 커져야 하고 통합돌봄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다문화나 청소년계가 커지면서 하나의 과가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복지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정책제안을 한다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장 장명영

우리 군에 해야죠. 군수가 조직개편을 해야죠.

○위원장 전용기

예산도 아마...

○의장 장명영

예산은 있는 예산인데 조직을 개편해서 일원화시키는 거죠.

○장광호 위원

통합돌봄 부서가 다른 업무도 많이 하니 통합돌봄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과가 늘어나면 티오가 늘어나기 때문에 팀 정도는 전담팀을 만들 수 있다...

○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예산도 따를 텐데. 결국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그때 반영돼서 기구도 확장시키고...

○의장 장명영

이미 영암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단이 사무관이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향촌복지과 내에 계장이 다른 업무와 같이 형식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장광호 위원

의장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시니까 조직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기

그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김환철 위원님.

○김환철 위원

갔다 온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저는 거기서 공감해요.

저희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복지정책을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나라도 웬만큼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연로하신 분은 재가돌봄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재가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구청이나 군청에서 따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면 사회복지사들이 센터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 되겠는데. 일일이 가정에 전화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한 가정에 두세 군데서 관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나 건의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면 인력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장 장명영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담양군에 국가정책으로 내려와서 향촌복지관과 메니요양병원 있죠. 거기에 수탁기관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메니 수탁기관은 봉산·수북·대전·고서 4개면을 수탁하고 나머지 담양읍을 포함해서 8개면을 향촌복지관에서 수탁기관으로 돼 있어요.

향촌복지관이 90명 정도 생활지원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7명 정도 돼 있고 메니는 40명의 생활지원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3명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담양에 준 거예요. 매년 의무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줘야 해요. 그 기관에 수탁을 준 거죠. 140명의 생활지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동향파악을 계속 해요. 거기서 중복되는 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관하고 군하고 또 달라요.

○위원장 전용기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한 군데로 통일시키면 효율적일 테고...

○의장 장명영

그렇죠. 그래서 통합돌봄서비스라는 것은...

○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건의해 보시면 되겠네.

○의장 장명영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용기

김환철 위원 좋으신 의견이고, 또

다른 위원님?

○김영민 위원

지난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할 때 정책제안했던 게 있었죠.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벤치마킹했던 결과가 효능감 있게 실제 반영돼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다문화, 청소년, 노인 돌봄, 복지에 있어서 담양군에 제도가 있긴 있는데 개선할 부분 또는 없으면 새로 할 부분을 적어도 한두 가지라도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되면 반드시 괄호 열고 몇 년도 벤치마킹 갔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표시하면 나중에 실적이 쌓이거든요. 구곡순담 4개 지자체에서 장수벨트를 만들었잖아요. 상징적으로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장수벨트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요새 파크골프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좁고 그래서 4개 지자체에서 정규 파크골프장 하나씩 만들어서 합동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할인해 주고 외부인은 비싸게 차등해서 받는 협의회 공통된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명영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문화나 청소년이라든지 통합돌봄이 있고, 통합돌봄은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해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제 성에

는 안 찬다는 거죠. 지금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걸음마 단계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3가지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거고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백진공원이 36홀이고 고서증암천 18홀로 10억 예산 들여서 올해 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군수님 군정방향이 생활민원처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홍수조절지에 36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흐지부지되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36홀을 하면 뒤에서 쫓아오고 공에 맞아서 발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파크골프장은 직진, 공을 치면 직진밖에 없어요. 일본은 골프장처럼 휘어있고, S자도 있고 둥병도 있고 모래도 있고 대신에 안 커요. 우리보다 면적을 적게 차지해요. 일본은 참 적은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세계 못 치게끔. 우리나라는 길게 세계 치는, 너무 반듯하고 단순하다는 것.

○위원장 전용기

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박은서 위원님.

○박은서 위원

지금 사실 목적이 출장보고서에 대한 걱정,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인데, 갔다 오셔서 소회발표를 듣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얼른 회의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용기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전체 다 한 말씀 하신 것으로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전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보고서의 걱정·적법성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걱정·적법합니다” 하는 위원?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위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호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해 걱정·적법한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걱정·적법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41분)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전용기
부위원장	장광호
위원	김환철
위원	이문태
위원	김영민
위원	박은서

○ 출장결과보고자 : 1인

의장	장명영
----	-----

○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 2인

의정팀장	김정순
지방행정주사보	강형주

○ 확인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	전용기
-------------	-----

(서명)

|